

불교기록 집대성 추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계획 발표

불교원전과 사상서, 사찰역사, 전통의례 등 불교기록유산이 하나로 집대성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4월 11일 한국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세기 통합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등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불교학술원 산하 동국역경원·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진행해온 한글대장경 개역·전산화사업과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 조선불교사기 편찬사업 등을 토대로 불교기록문화유산을 집대성하는 사업이다.

불교학술원이 집대성할 불교기록문화유산에는 고려대장경을 비롯해 한국불교전서 등 불교원전과 사기(私記)·연해·문집 등

사상문화서, 사지(寺誌) 등 사찰역사, 의식·의례 등 전통의례, 구술·구전자료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2012~2016년)에는 고려대장경·한국불교전서 등 불교원전 기록유산을 역주와 국내외 한국불교 관련 자료 등 불교기록유산을 집성한다. 웹 서비스 및 스마트미디어 앱 개발 등도 진행된다. 2단계(2017~2021년)에는 1단계 사업에 더해 사상문화 중심의 불교기록유산 역주와 문화콘텐츠 개발에 착수하며, 3단계(2022~2026년)에는 1·2단계 사업에 토대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완료한다. 3단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한국불교 문헌에 대한 영역화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학술원장 인환 스님은 "동국대가 한국불교학 만큼은 세계 중심이 되자는 취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기획했다. 한국 불교학의 중심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학술원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외에도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불교학 진흥 연구인력 양성 △한국불교학 진흥기금 모연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환 스님은 "산하기관인 종학연구소,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동국역경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한국학으로서 한국불교학 확립'을 모토로 HK(인문한국)사업 등 신규프로젝트 수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금강대 위상 강화

정원 확대 지역교양 나서

정병조 금강대 신임총장은 4월 13일 인사동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용 불교학과 신설 등 학제를 개편하고 재학생 정원을 늘려 불교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강대는 2개 학부 4개 전공 체제로 학생정원은 400명 수준이다. 정병조 신임총장은 2012년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응용 불교학과와 회계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1200명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정총원에 대해 정병조 신임총장은 "학교발전 기금 모연과 함께 그동안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전액 무료로 운영하던 기조를 바꿔 기숙사비는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강대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금강불교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복지시설 및 불교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김영국 칼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정책특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바라보며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의 총본산인 총무원청사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건물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과 종교와의 밀착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번 조계종 총무원 인사에 대해 일부 불교인론이 새로 임명된 스님이 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쌓고 있다는 보도 때문이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세간을 떠난 출가자가 세속의 정관계 인사들과 교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세속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식집에서 만나 비싼 음식을 먹고, 폭탄주나 마시며 개인이나 특정계파의 이익이나 쟁기는 로비를 하는 일에 정관계 인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계종이 강조하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 요구'는 결코 이러한 로비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

출가수행자들이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속의 정관계 인사들과 어울려 출가수행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세속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식집에서 만나 비싼 음식을 먹고, 폭탄주나 마시며 개인이나 특정계파의 이익이나 쟁기는 로비를 하는 일에 정관계 인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계종이 강조하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 요구'는 결코 이러한 로비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

출가수행자들이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속의 정관계 인사들과 어울려 출가수행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포교연구실장에

법상 스님 임명



새 포교연구실장으로 법상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4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실에서 법상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1980년 덕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범어사승가대학과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기 구리시에 있는 관음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이은 기자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체제로

상임대표 선출 않아, 회원 의무 강화



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보선 등)가 상임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공동대표 체제로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불교환경연대는 4월 13일 서울 템플스테이션 터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열고 공동대표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종회이자 보선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현용 스님, 여주 신복사 주지 세영 스님, 현고 스님, 해자 스님, 진원 스님의 8명으로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공동대표 의장은 보선 스님이 맡아 대외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사무국의 역할을 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집행위원장에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있던 전 조계종 환경위원장 주경 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임했으며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각 지부 대표 6명을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임효정 전 집행위원과 최은영

노덕현 기자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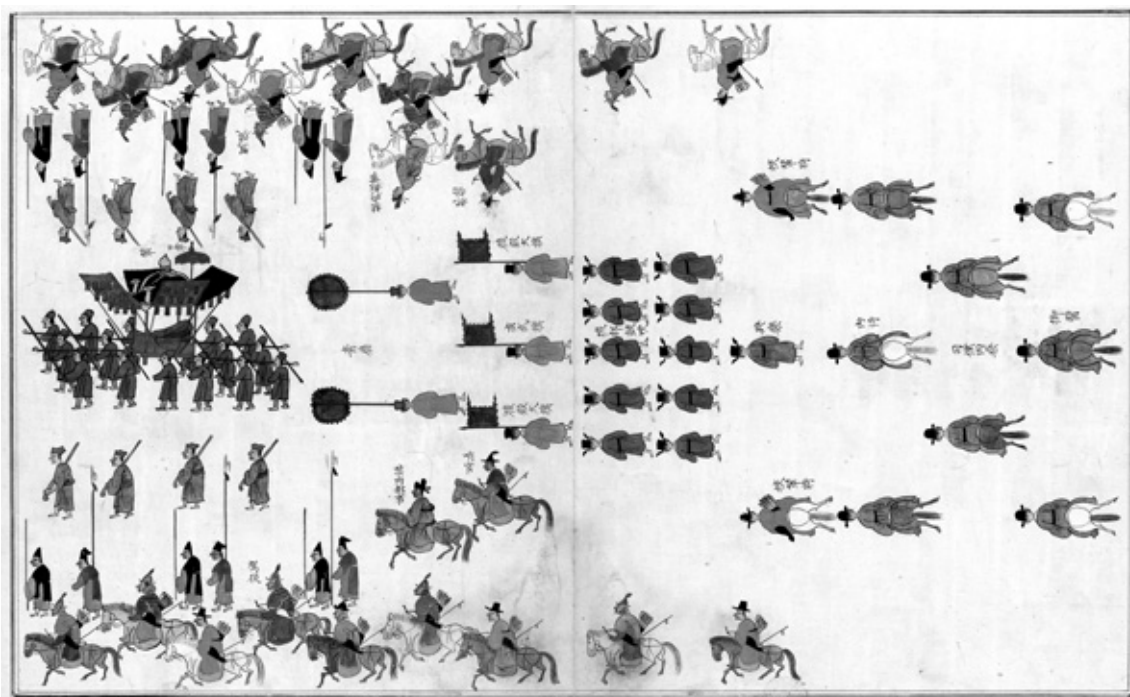
11월 1~3일 낙산사에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11월 1~3일 강원도 낙산사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4월 12일 AW컨벤션 센터에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교류위원회의를 열고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앞서 9월초에는 한·중 수행체험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삼국대표단은 일본 지진피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훼손수구 설치 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5일 외규장각 도서 환수에 기여한 관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번 환수를 계기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14일 한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중 가례도감 의궤 하권 중 도상.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빛과 생명으로 함께하는 문화광주

제1회 빛고을

관동축제

일시 불기 2555(2011)년 5월 6일(금)~ 8일(일) 장소 광주공원 앞 광주천 일원

점등식 : 2011년 4월 20일(수) 오후 6시, 광주광역시청 앞

주관 _ 2011빛고을관동축제 봉축위원회 후원 _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KJB 광주은행

행사내용

전통 물고기등·전통등 전시	2011년 5월 6일-8일(3일간)
빛고을 관동축제 체험관	2011년 5월 6일-8일(3일간)
빛고을 관동축제 길거리 음악회	2011년 5월 6일-8일(3일간)
연등법회 / "송대판과 함께하는" 연등음악회	2011년 5월 6일 오후 6시
전통등 행진	2011년 5월 6일 저녁 7시